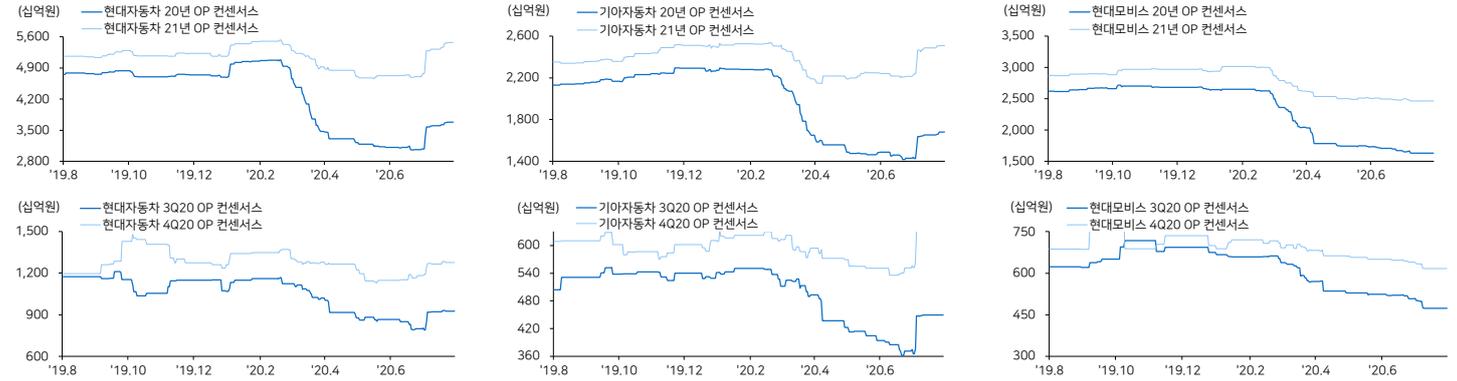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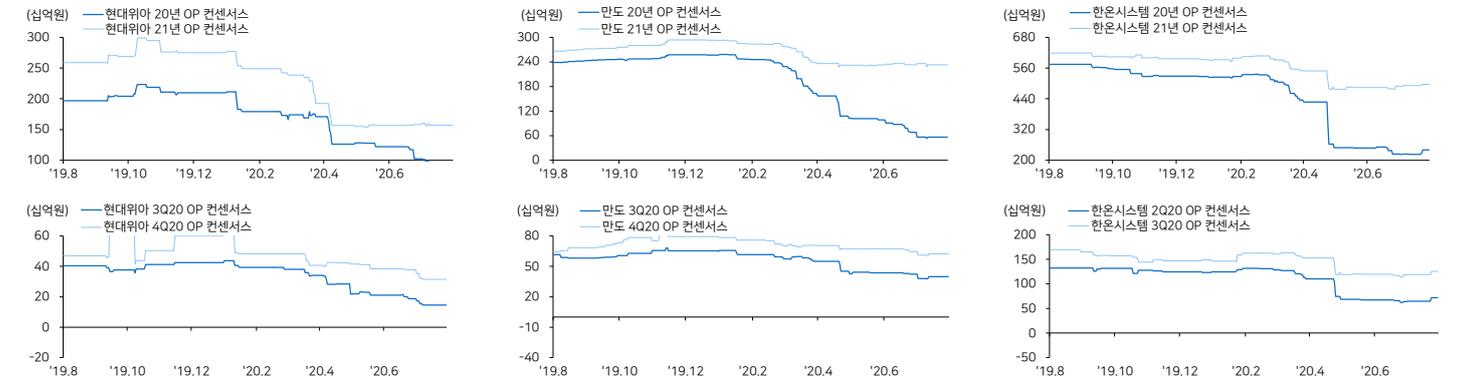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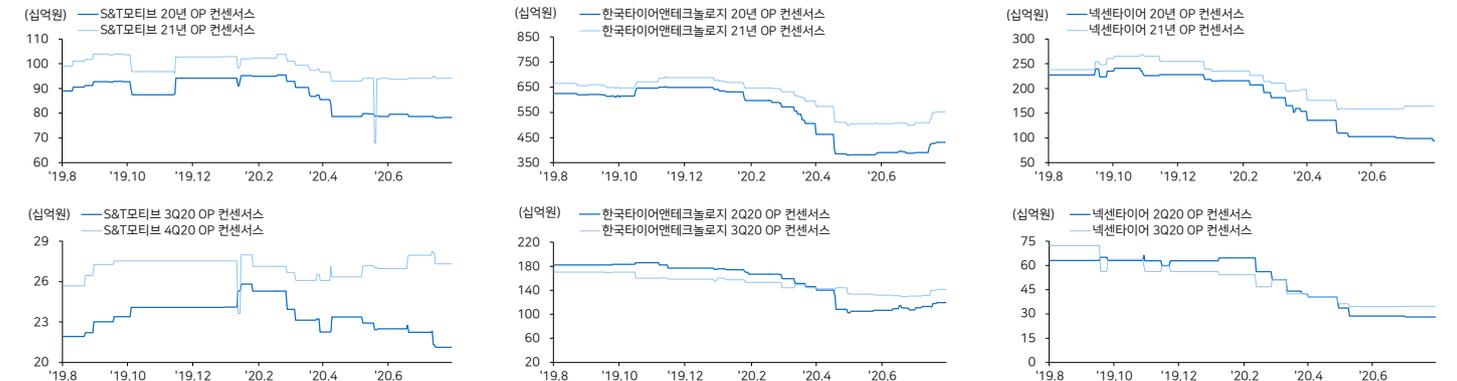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유럽차를 위협하고 있다' 독일 전문지가 밝힌 현대·기아차의 성공 이유 10가지 (HMG저널)

독일의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가 유럽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성공 비결을 소개. AMS가 현대·기아차의 차량 평가를 소개한 적은 없지만 이번처럼 브랜드 특집 기사를 실은 것은 이례적.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289919&memberNo=10759501>

현대·기아차, 8월 글로벌 판매량 53만대... 전년 대비 10.7% 감소 (전자신문)

지난 달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각각 31만2990대·21만6945대로 전년 대비 14.2%, 5.2% 줄었다. 현대·기아차 전체 판매량은 52만9935대로 전년 대비 10.7% 감소.
<https://bit.ly/3jEK6bJ>

전기합성·스마트주조장치 오류...벤츠·기아·현대차 등 8만여대 리콜 (뉴스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비엔디블유코리아, 화강상사,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되는 제차·핀래한 총 36개 차종 8만35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된 리콜.
<https://bit.ly/31Q9jpv>

포드자동차, 북미 직원 1000명 감원 준비 (뉴스원)

포드는 2년 전에 착수한 11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북미 지역 유급직 1000명 정도를 감원할 방침.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 팬데믹으로 인한 비용 부담 상승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https://bit.ly/32KhFJL>

기아차 4세대 카니발, 출시 첫 달 4천736대 판매 (ZD넷코리아)

지난달 18일 출시된 기아차 4세대 카니발이 출시 첫 달 4천736대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는 4세대 카니발 출시 당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전계약대수가 3만2천여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https://bit.ly/34XCEEI>

개소세 약발 떨어지자... 지난달 자동차 내수 대폭 감소 (동아닷컴)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지난달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차량 판매 부진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bit.ly/3biHBbW>

전기차 업체 테슬라,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 (MBC뉴스)

테슬라가 6조 원 가까운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선. 테슬라는 주주 또는 3차 배정 방식이 아니라 가끔씩 신주를 발행해 시세대로 파는 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재무 구조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https://bit.ly/3jw02N6>

중 광저우, 바이두 손잡고 '자율주행 도시' 변신 꾀한다 (ZD넷코리아)

중국 광저우의 도시 전체가 바이두의 인공지능(AI) 교통 기술로 변신을 꾀함. 인프라 전반을 자율주행에 맞춰 바꾸겠다는 시(市)의 의지가 높아있음. 투자 금액이 4억6000만 위안(약 797억 3천640만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
<https://bit.ly/2E0qfZL>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는 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